

윤치호 초기 일기의 장르적 성격

손정수 *

1. 서론
2. 사건과 의식을 초파하는 잉여로서의 '고백'
3. '고백'으로부터 파생된 '소설(novel)'
4. 수사의 쇠퇴와 논리의 대두
5. 결론

1. 서론

윤치호(1865. 1. 23~1945. 12. 9)는 여러 방면에 자취를 남긴 근대사의 주요 인물인데, 그 자취 가운데 하나는 그의 일기로, 우선은 거의 평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오랜 기간(1883. 1. 1~1943. 10. 7)에 걸쳐 쓰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처음에는 한문(1883. 1. 1~1987. 11. 24)으로 시작되었다가 한글(1887. 11. 25~1889. 12. 7)을 거쳐 나머지 대부분은 영문(1889. 12. 7~1943. 10. 7)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도 예외적이다.

이 일기는 그 기록자가 개화주의, 기독교, 친일 등과 관련한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로 사회사상적 관점의 연구에 의해 그 운동의 이념적 근거로서 활용되었다.¹⁾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표기

*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1) 이 방면의 대표적인 연구로 정용화, 2001 「문명개화론의 덫: 『윤치호 일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1-4; 김상태, 2003 「일제하 윤치호의 내면세계 연구」 『역사학보』 165; 우남숙, 2012 「미국 사회진화론과 한국 근대: 윤치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 사상사연구』 11-1; 허동현, 2006 「개화기 윤치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

언어와 그 형식은 그리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영어로 서술되었다는 점이 새삼 의미를 띠게 된 것은 영어교육 분야의 경우를²⁾ 별도로 치면, 비교적 최근의 문화연구 방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이다.³⁾ 이 경향의 연구는 그 표기 언어의 형식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면서 그 이면에서 전개되었던 식민지 근대주체의 형성과정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텍스트와 의식 사이의 매개로서 욕망, 장르 등을 설정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장르를 접근 수단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이전경의 연구는 이 글의 방향과 근접해 있는데, 거기에서는 윤치호 초기 일기를 네 시기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1) 실록과 상소문(1883~1884), (2) 수신적 글쓰기와 기행문(1885~1889), (3) 서간문과 지리학적 글쓰기(1890~1891), (4) 논쟁과 논설의 양식(1892~1895) 등의 특징을 발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일기를 논픽션의 한 장르로 전제하고 그 인접한 장르들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화를 단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윤치호의 초기 일기, 특히 미국 유학 시기의 일기에서는 허구적 양식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여러 유형의 표현적 계기들을 마주할 수 있다. 물론 그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기라는 형식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굳이 해체론의 논의를 벌려오지 않는다 해도, 사실과 허구의 대립은 그 맞닿은 지점에서는 언제나 구분이 불분명한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가령 제라르 주네트는 순서, 속도, 빈도, 어법, 목소리 등 그가 『서사 담론(Narrative Discourse)』(1980)에서 취했던 여러 서사 단위

11: 마상훈 · 최연식, 2017 「윤치호의 미국 유학 경험과 사회개혁사상」 『동서연구』 29-2 등이 있다.

2) 김정렬 · 박정례, 2008 「좌옹 윤치호의 영어 일기 분석」 『영어영문학연구』 50-2 등이 있다.

3) 이 방면의 연구로 윤영실, 2003 「‘미국’과 식민지 근대주체 형성의 한 경로: 『윤치호 일기』를 중심으로」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아카데미; 이선경, 2012 「윤치호의 문화횡단적 글쓰기: 초기 일기(1883~1895)에 나타나는 언어, 장르, 주체구성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56 등이 있다. 그 밖에 이솝 우화를 편역한 『우순소리』에 대한 연구로 허경진·임미정, 2009 「윤치호 『우순소리(笑話)』의 성격과 의의」 『어문학』 105; 이효정, 2009 「『우순소리』 소개」 『국어국문학』 153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구체적인 모티프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새로운 흐름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Julian Bontino, 2015 「윤치호의 ‘죽음’과 장례문화 인식: 『윤치호 일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6; 박주영, 2017 「윤치호의 결혼: 한말 근대적 주체와 전근대적 관습/관념의 충돌」 『한국사학사학보』 36 등이 있다.

의 관점에서 사실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⁴⁾ 이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삼는다면, 윤치호의 일기를 자동적으로 논픽션의 범주에 넣는 장르적 선입견에서 끄내어 그 자체의 양태를 존재하는 그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미국 유학 시기를 전후로 한 윤치호 일기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는 경험의 기록에 해당되는 일기의 형식 속에 나타나고 있는 허구 지향성의 존재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언어, 문화적 경험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외부 환경의 수동적 산물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체류의 경험 이전의 일기에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고백적 특징을 가진 장면들이 그 증거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윤치호의 한문 일기에 나타나는 고백적 특징을 살펴보고(2장), 영문 일기를 거치면서 허구화 경향으로 보다 활성화 되는 양상들을 분석할 것이다(3장). 그리고 망명과도 같았던 미국 유학 생활로부터 귀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허구적 성격의 변화까지 차례로 짚어보고자 한다(4장).

2. 사건과 의식을 초과하는 잉여로서의 ‘고백’

일기는 날마다 적은 내용을 모아 둔 것인데, 그 내용을 적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같은 사람이라도 매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가령 아무 것도 적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윤치호 일기의 경우에도 그런 날이 많다. 물론 비어 있는 날의 빈도는 시기마다 다르며 그 공백 역시 말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것이다. 별일이 없었다고만 적는 날도 있고, 일어난 일만 간략하게 기록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일인칭 주체가 등장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윤치호 일기의 대부분도 이런 방식의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한문과 국문으로 기록된 초기에는 더욱 그러한 양상이 뚜렷하다. 모리스 블랑쇼는 “일기는

4) Gérard Genette(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1993 “Fictional Narrative, Factual Narrative”, *Fiction & Dic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pp.54-84 참조.

‘달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는 무서운 조항에 따르고 있다”고⁵⁾ 적고 있는데, 어쩌면 매일 무언가를 적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기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일지도 모른다. 그래야 “사람은 망각으로부터도 말해야 할 그 무엇도 없다는 절망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⁶⁾ 기 때문이다.

마사오 미요시는 1860년 미국을 처음 찾은 일본의 사절단이 남긴 기록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여행기의 두 축을 이루는 묘사적 충동(descriptive impulse)과 상상적 열정(imaginative energy) 가운데 후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특이성을 지적하고 있다.⁷⁾ 그것은 상대적으로 개인적 감상이 풍부한 동시대 서양 인물의 일본 여행기의 특징과 대비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와 같은 대비가 뚜렷하게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시차의 문제이지 일본 역시 전반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근대적 글쓰기로 이행해나가게 되며 조선의 일기 역시 그런 흐름을 따라 변화하고 있었다. 다만 봉건과 근대가 급격하게 교차하는 시기에 당대로서는 예외적으로 미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체험했던 윤치호였기에 그의 일기는 그러한 전환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바, 윤영실과 이선경의 연구가 규명하고 있는 것 역시 묘사적 충동으로부터 상상적 열정으로 이동해가면서 보다 뚜렷해지는 근대적 자아의 성립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제기하고 싶은 첫 번째 논점은 윤치호 일기의 경우 경험한 사건과 그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초과하는 잉여의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일찍이 그 초기부터 등장한다는 데 문제성이 있다.

10대 후반의 윤치호는 푸트(Lucius H. Foote) 미국공사의 통역관으로 있던 시절 조선 보빙사의 파견과 미국에서의 수행에 도움을 주었던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을 대접하는 일행에 참가하여 화계사를 방문하게 되는데, 다음이 그날 일기의 전문이다.

5) 모리스 블랑쇼(심세광 옮김), 2011 『도래할 책』, 그린비, 351면.

6) 위의 책, 354면.

7) Masao Miyoshi, 2005 *As We Saw Them: The First Japanese Embassy to the United States*, Paul Dry Books, pp.97-147 참조. 여기에서 마사오 미요시는 상상적 해석이 그 극단에 이르면 꾹션에 도달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p.100), 이 언급은 이 발표문의 후반부의 맥락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이다.

(1884년 2월 – 인용자) 22일(26일, 금, 맑음, 삼가다)

이날 오후 1시에 사서기(司書記) · 로웰 · 최미산[崔徽山, 최경석(崔慶錫)] · 이사관(李司官) · 정사관(鄭司官)과 함께 기생 4인을 데리고 화계사(華溪寺)에 가다. 화계사에서 자다.⁸⁾

예기 4인을 동반하여 6명의 일행은 화계사를 방문했다. 다음 날(23일) 아침에는 금석(홍영식)이 방문하여 한나절을 보내고 돌아갔다고 그 날 일기에는 적혀 있다. 일행은 하루를 더 머물고 다음 날(24일) 오후에 그곳을 떠났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윤치호는 그런 내용을 적지 않았다. 다음은 23일 일기의 전문이다.

(1884년 2월 – 인용자) 23일(27일, 토, 맑음, 삼가다)

화계사에서 지내다. 밤에 영월(影月)과 같이 자다. 아침에 금석이 왔다가 저녁 5시경에 돌아가다.

오사(吳師, 우창칭)가 떠나가다.⁹⁾

2박 3일 간의 일정 동안 윤치호는 다만 다녀온 사실과 동반하거나 중간에 방문한 인물들 이름만 적었다. 그런 가운데 ‘밤에 영월과 같이 자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전후 일기의 맥락과도 어긋나는 돌출적인 느낌을 준다.¹⁰⁾ 이 순간 윤치호는 자신의 경험들이 갖는 의미를 배치하는 데 이전과는 다른 의식의 상황

8) 윤치호(송병기 옮김), 2001 『국역 윤치호 일기 1』, 연세대학교 출판부, 86면. 이 시기는 윤치호가 한문으로 일기를 쓰던 때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1884년 음력 정월-인용자) 二十六日(晴, 慎, 廿二日, 金) 是日午後一時, 共司書記及魯越·崔徽山(慶錫), 李司官·鄭司官, 携藝妓四人, 往華溪寺, 夜宿華溪寺。”(윤치호, 1973 『尹致昊日記 一』, 국사편찬원회 편, 탐구당, 47면) 이하에서는 번역본에서 인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원문을 밝히도록 한다.

9) 위의 책, 86면.

10) 한편 로웰의 기록에는 이 날의 경험(‘푸른 숲의 골짜기’에서의 연희)이 꽤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대비를 이루고 있다. 로웰은 ‘외무아문 관리들을 위한 잔치’가 펼쳐진 정자 내부, 만찬에 차려진 음식, 기생들의 외모와 옷차림, 머리 모양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네 명의 기생의 이름 가운데 ‘달맞이꽃’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인물이 ‘영월(影月)’일 것이다. 페시벌 로웰(조경철 옮김), 2001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199-205면 참조.

속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며칠 뒤에 윤치호는 이 기생을 다시 찾 아간다.

(1884년 2월－인용자) 26일(30일, 화, 맑음, 삼가다)

아침에 가친의 서간과 배와 명주를 유지사[柳知事, 유재현(柳載賢)]에게 보내다.

아침에 이이숙(李姨叔, 이동진)을 찾아가 뵙다. 낮에 영월에게 230냥을 주다. 가히 실없는 일이라 하겠다. 어찌 우습지 않은가.¹¹⁾

이 날 윤치호는 자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기록한다. 이 순간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행동하는 자신은 마치 연극 속의, 소설 속의 인물들처럼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리스 블랑쇼는 “일기에서 진솔성은 도달해야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요청을 나타낸다”고¹²⁾ 적은 바 있는데, 윤치호 일기의 이런 면모는 진솔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 윤치호는 다른 염사(艷事)에 둘러싸여 있기도 한데, 이 사건 역시 아무리 개인의 일기라고 하더라도 굳이 기록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1884년 2월 21일 일기의 일부이다.

밤에 백시낭(白侍娘)에게 글을 보내어 공사관 일을 마친 뒤 방문할 것임을 알렸다. 가서 거실을 보니 장식이 깨끗하고 우아한데 향기는 한 방에 가득 차 있고 촛불은 휘황하여 언뜻 보면 사람을 놀라게 한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그 언니가 돌아왔으므로 이목이 빈다하여 작별하고 돌아왔다. 기연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하겠다.¹³⁾

이보다 한 달쯤 앞선 1월 24일 일기에는 “이날 백씨[白氏, 백낭(白娘), 뒤에 동거하게 되는 기생]가 나에게 글을 보내오다”라는¹⁴⁾ 문장이 나오는데, 이날 일

11) 윤치호, 앞의 책, 86면.

12) 모리스 블랑쇼, 앞의 책, 352면.

13) 윤치호, 앞의 책, 85면.

14) 위의 책, 74면. 여기에서 백씨(혹은 백낭)가 기생이라는 설명은 윤치호 일기 내에서는 근 거가 없는 추측이다. 윤치호는 백낭을 소개하면서 “내가 가만히 이 아가씨를 헤아리건대, 그 어버이의 사랑을 받고 가세가 가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1884년 6월 23일자 일기,

기를 통해 그 ‘백씨’와의 관계가 진전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맥락은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적어도 이때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을 겪고 있는 윤치호의 정서적 상태는 이 일기를 통해 부각되어 있다. 다시 한 달쯤 뒤의 일기에는 “밤에 백시낭(白侍娘)에게 마음을 돋구는 도심서(挑心書, 마음을 돋우는 글)를 보내다”¹⁵⁾(1884년 3월 15일)는 문장과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 또 며칠 뒤에는 “어제 백시낭(白侍娘)이 나에게 ‘비취’ 가락지를 주었는데 종이에 가득 적은 말들이 은근하고 사랑스럽다”¹⁶⁾(1884년 3월 19일)는 구절도 나타나 있어 그 사건의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건에 도달한다.

(1884년 4월 – 인용자) 22일(27일, 화, 맑음, 삼가다)

이날 오후 2시에 미국공사 부인을 인도하여 먼저 비원[上林, 비원(秘苑)]의 꽃과 베드나무를 구경하고 3시경에 폐현(陞見)하다. 이날 미국공사 부인에게 꽃나무화분 8개를 내린다.

저녁을 듣 뒤 대치장을 방문하다.

다행스럽게 이날 밤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백양[白嬢, 백시낭(白侍娘)]과 더불어 나의 진지한 소망을 성취하였다.(밀줄-인용자) 3시경에 공사관으로 돌아오다.¹⁷⁾

위의 책, 138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스스로도 윤치호에게 “첩은 시하의 귀한 떨로 의식 장물에 부족한 바가 없다”(1884년 6월 23일자 일기, 위의 책, 139면)고 말하고 있다.

15) 위의 책, 93면.

16) 위의 책, 98면.

17) 위의 책, 107면. 번역자는 ‘백양(白嬢)’과 ‘백시낭(白侍娘)’을 동일 인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들은 다른 인물이다. 윤치호는 푸트 공사의 부인을 찾아온 궁녀 백시낭을 통해 그 사촌 여동생인 ‘백낭(白娘)’을 소개 받아 한 동안 연분의 관계를 맺는다. 이 백낭은 모교(毛橋, 광화문의 동아일보사와 서린 호텔 사이에 있던 다리) 부근에 살고 있었던 까닭으로 ‘모교낭’, ‘모교의 백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백시낭은 윤치호와 백낭이 관계를 맺던 초기에 둘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는데, 이 시기 윤치호가 백시낭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동일 인물로 혼동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의 전말은 윤치호 자신이 일기(1884년 6월 23일)에서 상세하게 정리해놓고 있다. 문제는 이후 ‘백낭’이라 불린 이 여성의 가출하여 윤치호와의 혼인을 주장하면서 발생한다. 결국 윤치호는 집안 어른들에게 ‘백낭’을 소개하고 그 사정을 설명한 후 관계를 승인 받아 정통에 따로 살림을 차리고 나중에는 교동 본가에 들인다. 1884년 12월 13일자 일기에는 “오후에 모교낭(毛橋娘)이 교동집으로 옮기다. 강씨(윤치호의 초취 부인-인용자)는 그의 본가로 돌아갔다”(위의 책, 212면)고 기록되어 있다.

하루 일과 가운데 몇 가지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다소 은밀한 어조로 백양과의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 대목은 한문으로 적은 일기의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884년 음력 3월-인용자) 二十七日(晴, 慎, 二十二日, Tuesday) 是日午後二點鍾, 導美夫人, 先玩賞上林花柳, 三時頃得陞見, 是日御賜八盆花樹於美夫人, 飯後往訪大致丈, This night I have fortunately accoprisched(accomplished-인용자) my earnest wishing, with my dear love Miss. Paik. 三時頃歸館。¹⁸⁾

여기에서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해당 부분이 특별한 방식으로 부각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문으로 기록된 이 시기의 일기 가운데 영어로 서술되어 있는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표기 언어에 의해 별도로 구분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윤치호를 제외하면 영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것은 오히려 은밀하게 감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건의 속성상 외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 사건의 특별함이 바로 위와 같은 표기 언어의 전환을 통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윤치호 일기의 성격에 비춰보면 그것은 루소의 경우와 달리 누군가 읽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글쓰기라고 하더라도 이 고백의 부분의 수신자가 되는 자기 내부의 대상은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윤치호는 일기에 이러한 사건들을 적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치호는 대답이 될 만한 근거나 암시를 남겨놓고 있지 않다. 다만 그와 같은 사건을 굳이 남겨놓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 자기 삶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건들이 관찰과 기록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 등 주체의 존재론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일기에서 고백적 특징이 강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8) 윤치호, 1973 앞의 책, 59면.

(1884년 11월-인용자) 9일(22일, 일, 맑음, 삼가다)

공사관에서 지내다. 아침에 비오더니 곧 개다.

연일(10일 초반부터 17일까지는 격일로, 22일까지는 아침마다였다.) 능히 색을 삼가지 못하여 형용이 초췌하고 안청이 짚어져 있어 조기[燥氣, 화기(火氣), 즉 불기운]가 올라온 것임을 알겠다. 그런데도 오히려 삼가지 못하니 한탄스럽다. 이날부터 각별히 삼가서 내달 초에 이르기 전까지는 특별한 여자가 아니면 색을 쓰지 않을 것을 결심하다.

풍세(風勢)가 고르지 못하다. 집에서 자다.¹⁹⁾

윤치호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확인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존재론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윤치호는 허약한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편이기도 해서 신체에 나타나는 현상에 예민하고 반응하고 있다. 그 반응은 금욕의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즉 자신의 문제적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윤치호 일기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성은 일기에 고백적 특성을 부여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결심이 단번에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갑신정변의 여파로 부득이하게 중국의 상하이에서 망명과도 같은 유학 시절을 보내던 시기, 윤치호의 일기에는 도덕적 방향과 자기 규율의 양상이 교차하며 반복되면서 그 고백적 특징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백 행위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욕망을 순차적으로 극복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²⁰⁾ 다음의 인용은 그 금욕적 수행의 과정에서 도달한 의미 있는 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이 장면에서도 원문과의 비교가 불가피하다.

19) 윤치호, 2001 앞의 책, 187면.

20)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무렵 윤치호 일기에 나타난 연도별 음주 횟수는 1885년 30회, 1886년 35회, 1887년 2회 등이며, 금주를 선언한 1887년 3월 이후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여성과의 연도별 동침 횟수는 1885년 2회, 1886년 9회, 1887년 0회 등인데, 1886년 8월의 선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영렬, 1984 「중·미 유학기의 윤치호 연구」『충실사학』 2, 47면 참조. 윤치호는 1887년 3월 입교원서를 제출하고 그해 4월 세례를 받아 기독교도가 되는데, 그 이전에도 금욕적 실천의 선언과 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윤치호에게 기독교의 영향은 일방적이지 않고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그의 내적 지향성과 맞물려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886년 8월-인용자) 14일(15일, 토, 흐림, 삼가다)

책 읽다. 어제처럼 바람 크게 불고 때때로 비 뿌리다.

“내 자신이 숭고하고 고결하며 현명하게 거동하여, 손상될지도 모르는 나의 건강을 보호하며, 낭비로부터 나의 금전을 방지하며, 내 자신이 보다 유용하고 신양심 깊은 지식에 공헌하기를 바라서, 나는 적어도 내가 상하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국적을 가진 ‘밤을 파는’ 여자들과 불의의 성교를 갖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하나님, 내가 사는 모든 환경 밑에서, 모든 시간에,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이것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숭고한 결심도 참을성 있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소서.” 마음의 약속(心約)이다. 밤새도록 바람 멎지 않다.²¹⁾

(1886년 음력 7월-인용자) 十五日(陰, 慎, 十四日, Sa.) 看書, 風大如昨無異, 時時灑雨, Desiring to conduct myself nobly, virtuously and wisely to preserve my health from being injured: to prevent my gold and silver from useless expense: and to devote myself more to useful and Godly knowledge, I have determined, not to have any adulterous intercourse with the “Night Selling” girls, to whatever nation they may belong, at least during my stay in Shanghai. May God encourage and help me to be perseverous(persevere의 형용사형으로 사용한 듯-인용자) and successful in carrying out this or any other virtuous determination, under all circumstances, at all times, and in any place I may live! Witnessed by conscience the Holy Image of Gods doctrine. 心約, 終夜風不息。²²⁾

자신을 규율하고자 하는 다짐에 해당되는 장면은 앞서 빈번하게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이 장면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문으로 표기된 다른 부분들과 달리 영문으로 표기된 부분은 동일한 내용을 다만 표기만 달리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순간 윤치호의 내면 속 ‘고백’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절대적인 대상을 향해 있다. 마치 영어로 적어야만 신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윤치호의 초기 일기에서 내면 기록의 맥락 속에서 발생한 고백의 특징은 이처럼 표기 방식과 연관되어 고백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행하게 된다. 일과의 기록 속에 부분적으로 발생했던 고백은 이제 그 자체가 일기의 형식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윤치호의 영어 일기는 다만 표기 체계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는 의

21) 윤치호, 2001 앞의 책, 367면.

22) 윤치호, 1973 앞의 책, 218-219면.

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의 새로운 차원은 윤치호의 영문 일기에서 수사적 특징과 허구 지향성이 활성화되는 조건이자 토대를 이루게 된다.

3. ‘고백’으로부터 파생된 ‘소설(novel)’

이미 앞에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런 영역을 지칭할 수 있는 개념으로 우리는 ‘고백(confession)’을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은 사건을 기록하거나 그에 대한 주체의 감상을 덧붙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사건을 일기에 강조해서 적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동기와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령 루소의 『고백록』을 시작하는 첫 문장처럼 “있는 그대로 완전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그려진 현존하는 유일한 인간에 대한 초상화”²³⁾를 그린다는 특별한 목적의식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일본과 조선의 근대 초기 이른바 ‘고백체 소설’ 또한 소설의 방식으로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윤치호 일기에서의 위와 같은 면모는 어느 순간 통상적인 일기의 성격을 벗어나 넓게 보자면 그와 같은 흐름과 연결되고 있는 듯 보인다.

특이하게도 노스럽 프라이(Northrop Frye)는 이런 성격의 산문 양식인 ‘고백’을 로맨스(romance), 노벨(novel), 아나토미(anatomy)와 더불어 산문 픽션(prose fiction)의 한 하위 장르로 설정하고 있다.

로맨스의 경우에서와 똑같이 고백을 독립된 산문형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갖는 가장 훌륭한 산문작품의 일부는 ‘사상’이라고 해서 전혀 문학으로 인정되지 않고, 또 ‘산문 문체의 모범’이라고 해서 전혀 종교나 철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막연한 책들이 한구석에 팽개쳐져 있는데, 그 산문 작품들을 고백형식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픽션으로서 명확한 위치를 얻게 된다.²⁴⁾

23) 장 자크 루소(이용철 옮김), 2012 『고백록』 1, 나남출판, 10면.

24) 노스럽 프라이(임철규 옮김), 2000 『비평의 해부』, 한길사, 582면.

노스럽 프라이에 의하면 ‘고백’을 두고 꾹션이나 꾹션이 아니나를 따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는 “장르 비평의 목적은 이러한 전통과 동족관계를 분류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 장르 비평의 목적은 그 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상호관계가 확립되지 않는 한 간과될 수도 있을 술한 문학적인 관련을 드러내는 것이다”²⁵⁾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반드시 하나의 양식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작품에는 여러 양식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문 꾹션의 여러 형식은 인간으로 말하면 인종적 특징처럼 혼합되어 있는 것이지 성별처럼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²⁶⁾ 때문이다. 고백과 소설(novel) 역시 서로 결합될 수 있다.²⁷⁾

루소 이후, 아니 실제로 루소에서도 고백은 소설 속으로 흘러들어 그 혼합에서 허구적 자서전, 예술가 소설(Künstler-roman), 기타 이와 유사한 형식이 나오게 된다. 문학적으로 보면 고백이 늘 작가 자신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적어도 『몰 플란더스』 아래 극적 고백은 소설에서 사용되어왔다. ‘의식의 흐름’의 기법에 의해서 이 두 가지 형식은 한층 집중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것처럼 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서조차도 고백형식 특유의 성질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백에서는 종교, 정치, 예술 등에 대한 어떤 지적·이론적 관심이 거의 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고백의 작가가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견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25) 위의 책, 471면.

26) 위의 책, 578면.

27) 노스럽 프라이가 들고 있는 고백 장르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루소의 『고백』과 더불어 베니언의 『흘러넘치는 은총』, 브라운의 『의사의 종교』, 호그의 『정당한 죄인의 고백』 등이 있다. 한편 소설과 고백이 결합된 작품으로는 디포의 『몰 플랜더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등이 있고, 로멘스와 고백이 결합된 작품으로는 드 퀸시의 『어느 영국 아편 중독자들의 고백』, 보로의 『라벤그로』 등이 있으며, 고백과 아나토미가 결합된 작품으로는 칼라일의 『의상철학』,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인가 저것인가』 등이 있다. 그 밖에 소설+로멘스+고백의 경우 리처드슨의 『파멜라』, 소설+고백+아나토미의 경우 프루스트, 로멘스+고백+아나토미의 경우 아풀레이우스, 그리고 네 가지 장르가 모두 혼합되어 있는 작품으로는 조이스의 『율리시즈』가 있다. 위의 책, 574-594면 참조.

28) 위의 책, 583면.

한문과 한글로 기록된 미국 유학 이전의 윤치호 일기에서 ‘고백’에 해당되는 영역이 주로 사건의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었다면, 미국 유학 시기 영어로 기술된 일기에서는 형식의 측면에서 허구화의 경향을 띠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에모리(Emory) 대학 유학 시기에는 편지 형식으로 된 일기가 한동안 등장하고 있다.

(1891년 11월-인용자) 27일

지금부터 일기를 쓸 때 편지형식으로 쓸 것이다. 편지를 받는 이는 미래 씨(Mr. Future)이다.

1891년 11월 27일 MHEOG(Marvin Hall, Emory, Oxford, Georgia)에서.

사랑하는 미래 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같은 그리고 계속 흐르는 강의 세 부분의 명칭이 아닙니까? 과거는 한때 미래였고 미래는 곧 현재가 되었다가 과거가 될 것입니다. 하루의 삶에 아침, 낮, 밤이 있듯이. 내 삶이 길거나 짧거나 그 안에 순간들이 있듯이 많은 과거, 많은 현재 그리고 많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고 사랑하는 미래 씨, 당신에게 왜 이 글을 써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는 개선하였든지 못하였든지, 성공이었든지 실패였든지, 기쁨이었든지 슬픔이었든지, 그 기회는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개선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성공하고 있든지 실패하고 있든지, 기쁨을 맛보고 있든지 슬픔을 맛보고 있든지, 그 기회는 지금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서 이득을 얻는 것은 바로 미래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말하면서 현재를 될 수 있는 대로 선용할 책임을 느낍니다. 내가 당신의 겸연이 창피하다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창피하더라도 행동하고 또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들을 기록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합니다.²⁹⁾

‘미래 씨’를 수신인으로 삼는 편지 형식의 일기는 1891년 11월 27일에 시작되어 그해 말까지 12회 등장한다. 그런데 추상적인 시간 명사인 ‘미래’를 인격화하여 수신인으로 삼는 편지라는 형식이 일기에 도입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일기를 편지 형식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그것이 고백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일상을 기록해둔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29) 윤치호(박정신 옮김), 2014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1』, 국사편찬위원회, 311면.

누군가에게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의 구체적인 수신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 그럼에도 그것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에 제한될 때 위와 같은 허구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편지체 형식의 일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하나님)과 같은 추상적 존재를 대상으로 한 고백이 엄숙하고 진지한 도덕적 선언의 형식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비해, 이 가상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고백은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전개되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1891년 12월-인용자) 19일(토)

사랑하는 미래씨:

(중략)

오후 4시 캔들러 박사 댁에서 한 입에 다 들어가지 않을 만큼 큼직한 오렌지 2개 가 왔습니다.

확신크대 미국인들의 정다운 인간관계는 벽난로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침대에 벽난로가 훨훨 타고 있습니다. 캔들러 박사 부인은 벽난로 오른쪽에 그녀의 어머니 카트赖特(Cartwright) 여사는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캔들러 박사는 벽난로를 정면으로 향하여 앉아 있고 그의 딸 폰지(Fonzie)는 그녀의 어머니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쇼티 2세라 불리는 아들 존 캔들러(John Candler)는 그의 머리만큼이나 큰 오렌지를 게걸스럽게 먹느라 바쁩니다. 애완용 개 모드와 페보(Pebo)는 더워 야단치다가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산 오렌지가 가득 담긴 큰 바구니가 캔들러 박사 부인 발 앞에 떡움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부모들의 엄격함이나 권위도 없고 어린이들의 두려움이나 거북스러워함도 없으며 모두들 편안하고 정다워 하는 분위기가 있을 뿐입니다.

원칙을 지키느라 타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조지아에서 누구보다 적이 많다고 알려진 캔들러 박사가 가족들과는 서로 아끼고 가까이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새롭고 신기합니다. 캔들러 박사가 신명을 바쳐 오직 대학 일에만 몰두한다면 이 대학을 성공적인 고등 교육 기관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 현재 그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총장을 계속 바꾸는 것은 학교 발전에서나 감리교단에 큰 해가 됩니다.³⁰⁾

이날 실제로 윤치호가 경험한 사건은 캔들러 박사 댁으로부터 큰 오렌지 두 개를 받은 일이다. 그 오렌지는 벽난로에 모여 앉은 단란하고 정다운 캔들러 박사 가족들의 모습에 대한 연상을 불러온다. 그 연상 가운데 어린 아들이 자기

30) 위의 책, 322-323면.

머리만큼이나 큰 오렌지를 게걸스럽게 먹고 있는 장면, 그리고 캔들러 박사 부인의 발 앞에 놓인 큰 바구니에 가득 담긴 오렌지의 이미지 등에서 오렌지가 연상의 근거로서 부각되어 있다. 여기에서 경험적 사건과 허구적 연상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하나의 서사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캔들러 박사의 성격화와 그에 대한 윤치호의 관점과 태도로까지 뻗어나가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서사적 흐름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이 날의 일기에서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경험과 상상, 그리고 의견이 얹혀 만들어낸 허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미래 씨’를 수신인으로 하는 일기 형식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날 20일 일기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확인된다.

(1891년 12월-인용자) 20일

사랑하는 미래 씨:

(중략)

알렌 박사, 본넬 교수, 그리고 호스 여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생각만큼 내 몸도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제한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지금 내 생각은 부모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근심에 쌓여 찾으며 조선으로 뻗쳐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은 한때 내가 살던 웨슬리홀 기숙사 방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은 호스 여사 곁에서 그녀의 친절한 말과 용기를 복돋우어 주는 웃음에 취해 행복하게 앉아 있거나 선교 사역과 남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그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은 고상한 친구 월터 스펜서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은 페니 얼리(Fannie Early) 양과 그녀의 조용한 가족들이 나누는 사랑과 애정 어린 대화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은 빛이 지구에 다 닿으려면 수천 년 걸린다고 하는 별들 가운데 치솟아 있습니다. 짧게 말해서 내 생각은 동시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³¹⁾

31) 위의 책, 323-324면. 이 부분은 수사적 표현의 특징을 보이기 위해 영어로 쓰인 원문을 밝혀둔다. “Wish my body were free from restrictions of space and time as my thoughts are. They know no limits or bounds. Now they range over Corea anxiously seeking for the whereabouts of my parents: now they visits the rooms I once occupied in W.H.: now they sit by the side of Mrs. Hoss happy in her kind words and cheering smiles or pained at her over work and cares: now they grasp the warm hands of that noble fellow, Walter Spencer: now they join the talks of love and affection in the quiet family circle of Miss Fannie Early and her dear companions: now they soar

여기에서도 경험적 사건은 편지를 쓴 사실에 국한된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논리적인 직접성을 취하지 않은 연상을 불러온다. 그 연상을 타고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조국의 부모, 그리고 미국에 온 이후 만나 관계를 맺은 다양한 인물들을 경유하여 우주 속의 별에까지 이른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연상은 지속되면서 허구가 포함된 서사의 형태를 띠게 되고, 또 그에 더하여 ‘지금 내 생각은(now they~)’이라는 반복적 수사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한 동안 지속된 이 편지 형식의 일기는 보통 형식의 일기로 되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다른 방식으로 시도된다.

(1892년 1월-인용자) 8일(금, 추웠으나 맑음)

호스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중략)”

저의 다음 거처에 관해서 앤런 박사로부터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만 하여튼 상하이로 돌아오라고 할 경우 6월 중에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에 내쉬빌에 들를까 합니다. 그러면 부인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테지만 부인께 작별을 고해야 하는 고통도 있게 되겠지요. 제가 헤어지기 아주 싫은 친구들이 미국에 몇 사람, 아주 적은 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인은 그 가운데 가장 헤어지기 싫은 분입니다. 저에게 부인은 헬렌 스텐나드 부인이 외로운 소년 시절 에드가 앤런 포의 애정 대상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 부인에 대한 그의 애정은 부인에 대한 저의 애정보다 더 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인과 부인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충심 어린 사랑을 호스 박사님께, 올리 양과 메리 양에게는 친절한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중략)

결심했다!

1. 일기는 가능한 한 편지 형식으로 쓴다. 받는 이는 실제 인물이거나 가공적 인물일 것이다. 편지는 보내도 되고 보내지 않고 보관해도 된다. 일기에 간직하고 싶은 것을 꼭 기록한다.

2. 새 날의 날짜를 새 쪽에 시작할 것이다.³²⁾

among stars whose lights are said to take thousands of years to reach the Earth—in short my thoughts are something like omnipresent.”(윤치호, 1974 『尹致昊日記 二』, 국사편찬위원회, 250면)

32) 위의 책, 264면.

이 결심에 따라 이 날부터 윤치호는 다시 편지 형식의 일기를 시작하여 2월 22일까지 9회 정도, 주로 호스 부인을 수신인으로 한 편지를 쓴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실제로는 부치지 않는다. 수신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전적으로 표현의 욕망, 그러니까 “일기에 간직하고 싶은 것을 꼭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편지의 수신인이 실제 인물이거나 가공적 인물이거나 상관이 없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실제 인물이라고 해도 가공적 인물과 차이가 없다. 표현의 욕망을 위해 떠올리는 일종의 가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고백’은 허구를 향해 더 열리게 된다. 수신자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라면 그 전언의 지위는 이미 불특정의 다수 독자를 마주하고 있는 허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날짜 별로 일기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초래될 여지가 커진다. 그렇다면 “새 날의 날짜를 새 쪽에 시작할 것”이라는 편집 형식의 요구 또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³³⁾

앞에서 ‘미래 씨’를 수신자로 한 편지 형식의 일기에서 사건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연상이 결합되어 허구적 서사의 형태를 취하면서 수사적 표현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면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와 같은 특징은 편지 형식으로부터 통상의 일기 형식으로 되돌아온 이후에도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 역시 허구적 지향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기 윤치호 일기의 장르적 성격과 관련된다. 이 표현의 특징은 영문으로 작성된 일기의 원문에서 더 잘 드러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Dr. Moon preached—long winded as usual. His sermons are like a piece of dry bread dipped in cold water: perfectly wholesome but perfectly tasteless.³⁴⁾

문박사가 설교하였다. 여느 때와 같이 길다. 그의 설교는 냉수에 담근 마른 빵조각과 같다. 보기는 무척 좋으나 맛이 아주 없다.³⁵⁾

The world is full of promises, but it is fuller of broken promises.

33) 이 대목에서 루소의 『신 엘로이즈』가 루소 자신의 연애 관계를 가상의 인물에 투영시킨 서간체 소설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볼 수도 있을 것 같다.

34) 1892년 10월 23일자 일기의 부분(윤치호, 1974 앞의 책, 394면).

35) 윤치호, 2014 앞의 책, 479면.

Providence is a mystery; the less we talk about it the wiser we are.³⁶⁾

세상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깨진 약속이 더 많다.

섭리는 불가사의다. 따라서 이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 않을수록 더 현명해진다.³⁷⁾

위에서는 우선 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설교를 냉수에 담근 마른 빵조각에 비유하는 직유적 표현이 사용되는가 하면, 섭리와 불가사의를 말을 하지 않을수록 현명해지는 유사한 속성으로 연결시키는 은유적 표현도 볼 수 있다. 대구와 대조의 수사적 표현도 활발하게 나타나 있다. “perfectly wholesome but perfectly tasteless” “the less we talk about it the wiser we are” 등의 구문이 각각 대구와 대조의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고, “the world is full of promises, but it is fuller of broken promises”에서는 대구의 구조를 활용한 아이러니의 표현이 돋보인다. 이와 같은 표현상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수사적 상황과 거리가 있는 일기라는 장르에서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거기에서는 표현의 내용이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윤치호의 일기에서는 표현의 형식이 비대해지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Lottie Berry is a little girl about 6 or 7 years old. She talks well. She is as spoiled as a spoiled egg.³⁸⁾

로티 베리는 6-7세쯤 된 어린 소녀다. 말을 아주 잘 한다. 하지만 깨진 달걀처럼 버릇이 없다.³⁹⁾

여기에서는 ‘spoil’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버릇없는’과 ‘깨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spoiled’라는 동일한 형식의 단어로 연결시켜 수사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처럼 의미의 차원에서보다 음성 형식의 차원에서 더 의미를 갖는 표현에 대한 관심이 그 표기 수단이 영어로 전환되어 지속된 어느 시점의 윤치호 일기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36) 1892년 10월 24일자 일기의 부분(윤치호, 1974 앞의 책, 396면).

37) 윤치호, 2014 앞의 책, 480면.

38) 1892년 11월 5일자 일기의 부분(윤치호, 1974 앞의 책, 404면).

39) 윤치호, 2014 앞의 책, 489면.

This morning I asked a man what he traveled for. He said something about corn curing. I thought he was an agent from North to buy up corn. But he surprised me by asking me if I had any corn and before I could hardly recover myself he pulled out of his vest-pocket a small bottle filled with a dark fluid. I was at my wit's end to know what in the world he had to do with that fluid was a medicine for taking off corns on or under the foot. According to him, corns are a very common trouble to young men and young women in this country. He said that old maidens or middle-aged ladies are easiest to approach and freest to own their having corns while young ladies are their contrary. This is as good as a joke on me as that of "the man with two little corns", of a "tobacco sifter", of the "cradle", of "the egg cooked", of the "big german", of the "mother goose".⁴⁰⁾

오늘 아침 어떤 사람을 만나 무슨 일로 여행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옥수수 치료하는 일(corn curing)로 여행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옥수수(corn)를 사려고 북쪽 지방에서 온 상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내게 '옥수수가 있느냐'고 물어 나를 놀라게 했다. 이 기막힌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그가 조끼주머니에서 검은 액체가 들어 있는 작은 병을 꺼냈다. 도대체 옥수수를 사고파는 일과 그가 내민 이 액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몰라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곧 이 액체가 발가락 위나 아래에 박인 티눈(corn)을 빼어 내는 데 쓰이는 약이라고 말해 주어 나를 안심시켰다 (생각할수록 꼭 재미있는 이야기다). 그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는 티눈이 짚은 남녀에게도 흔히 있는 문제라고 한다. 나이 많은 여성이나 중년 부인들은 티눈을 가졌다 고 숨기지 않아 접근하기가 아주 쉽고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짚은 여성들은 숨긴단다. '작은 뿔 두 개를 가진 사나이(the man with two little horns)', '담배 조사관(tobacco sifter)', '문명의 요람(the cradle)', '요리된 계란(the egg cooked)', '큰 친척(the big german)', '어머니 거위(the mother goose)'와 같이 '옥수수'(corn) 또한 동일한 단어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어 나에게는 재미있는 농담거리다.⁴¹⁾

위의 인용은 '옥수수'와 '티눈'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corn'이라는 동음이의어로 인해 혼란을 겪은 날의 일기의 일부이다. 길게 인용한 이유는 'corn'이라는 동음이의어와 관련된 이 에피소드가 어느 정도 분량을 갖추면서 서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대구, 대조 등의 수사적 표현의 특징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동음이의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장면 또한 이 글의 맥락에서 인상적인 대목이다.

40) 1892년 12월 17일자 일기의 부분(윤치호, 1974 앞의 책, 441-442면).

41) 윤치호, 2014 앞의 책, 525면.

때로는 이와 같은 수사적 표현에 힘입어 어떤 사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표현에 이르는 장면 또한 확인해볼 수 있다.

Two mornings ago as I stood on the steps of the Science Hall I pulled out my watch to set the time by the tower clock. The wonderful fact that a watch so small as to be carried in a vest-pocket could keep time with a giant of a clock suggested the thought that a finite being could walk in harmony with the laws and plans of the infinite God provided the motives are the same in both.⁴²⁾

두 달 전(‘이틀 전’의 오역-인용자) 과학관 계단에 서서 시계탑 시간과 맞추려고 내 시계를 꺼냈다. 조끼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닐 정도로 작은 시계가 거대한 시계탑 시계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양자가 동기만 같다면 제한된 존재인 인간도 무한한 하나님의 법과 계획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⁴³⁾

위의 인용에서 윤치호는 휴대용 시계와 같은 작은 시계와 시계탑의 큰 시계가 하나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사실로부터 유한한 개인의 자유가 무한한 존재인 신의 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원리를 유추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사적 표현은 추상적인 자유에 도달하는 보다 복잡한 과정의 논리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핀 표현의 특징과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번 발견된 수사적 표현의 특징은 반복하여 적용하려는 경향을 동반하는 법이다. 다음의 인용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very time I see monstrous iron wheels whirl on with a force that seems to be irresistible(‘irresistible’의 오기-인용자), that crushes anything which may come in its way without compromise and mercy, I can’t help thinking about the iron wheels of necessity that whirls on forever.⁴⁴⁾

불가항력의 힘으로 돌아가는, 무엇이든 거기에 들어가면 타협이나 은총 없이 무자비하게 뭉개 버리는 거대한 철 바퀴를 볼 때마다 나는 영원히 돌아가는 숙명의 철 바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⁴⁵⁾

42) 1892년 12월 10일 일기의 부분(윤치호, 1974 앞의 책, 435면).

43) 윤치호, 2014 앞의 책, 518면.

44) 1892년 12월 29일 일기의 부분(윤치호, 1974 앞의 책).

45) 윤치호, 2014 앞의 책, 531면.

여기에서도 물리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유추’의 수사적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날 윤치호는 테네시주의 록우드(Rockwood)를 여행하던 중 철광석으로부터 선철을 걸러내는 철 용광로를 관찰한다. 선철(pig-iron)이라는 이름이 “불빛 나는 액체가 응고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새끼 돼지들이 어미 돼지의 젖을 빼는 것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라는⁴⁶⁾ 사실에 대한 윤치호의 관심 또한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 맥락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철바퀴’라는 사물로부터 타협이나 은총 없는 무자비함의 속성을 통해 ‘필연의 철바퀴’라는 추상적 비유의 차원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노스럽 프라이에 따르면 우리가 논설적, 기술적 또는 보고적(報告的)이라고 일컬어온 문장 형태는 문법과 논리의 직접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의 논술이 언어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술적인 문장형태에서는 수사와 같은 중간항을 끼워 넣을 여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로 철학자, 과학자, 법률가, 비평가, 역사가, 신학자들은 수사를 얼마간 불신의 눈으로 보기도 한다”는⁴⁷⁾ 것이 노스럽 프라이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윤치호의 초기 일기는 논설적, 기술적, 보고적인 문장 형태와는 다른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미국 유학 시절의 영문 일기에서 나타나는 형식의 실험, 사건과 논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어지는 서사적 형태의 연상, 그리고 급격한 빈도로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사적 표현의 사례들은 그의 일기가 사실적 서사의 영역을 벗어나 허구적 서사를 향하는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4. 수사의 쇠퇴와 논리의 대두

그러나 『윤치호 일기』에서 이와 같은 ‘고백’의 특징,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진

46) 위의 책, 531면.

47) 노스럽 프라이, 2000 앞의 책, 477면.

허구 지향성과 수사적 표현의 특징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1893년 11월 윤치호는 미국 조지아주 옥스퍼드를 떠나 상해로 되돌아온다. 미국에 오기 위해 상해를 떠났던 1888년 9월로부터 5년 남짓한 세월이 지났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망명객이나 다름없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선교지 중국에 파견되는 미국의 신학대학 졸업생의 자격으로 교육과 선교활동을 위해 온 것이다.

뉴질랜드의 기독교인 사업가 스미스 씨가 참석했다. 그는 내게 매우 정중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주로 영국인, 스코틀랜드인, 미국인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다.⁴⁸⁾

이 날 윤치호는 선교회의 월례모임에 참석한다. 일종의 사교 모임인 행사가 끝나고 토론회가 이어 열렸다. 불교 소책자 읽기가 그날의 주제였다. 윤치호는 한때 그의 교사였던 본넬 교수가 불교식 이름을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는 것을 여유 있는 태도로 지켜보고 있다. 또 청중들은 윤치호에게 몇 마디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그는 불교식 이름에 달이라는 용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한다. 상해의 중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조차 예전처럼 그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때로는 윤치호로 하여금 그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하도록 만든다.

본넬 교수의 침실에서 흥금을 터놓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내 자신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공감을 참 잘해 준다. 나는 수진이 유럽식 복장을 하고 외국의 생활 표준이나 양식에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는 한 가지 이유에 대해 내가 미국 교육에 의해 겉멋이 든 듯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본넬 교수는 열렬히 나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 본넬 교수는 나를 너무 아껴서 잠시 동안 일지도 도, 내가 그와 다른 인종이라는 것을 잊은 듯이 보인다. 하나님, 저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에게 축복을 주소서!⁴⁹⁾

48) 1894년 1월 30일 일기의 부분[윤치호(박정신·이민원 옮김), 2014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2』, 국사편찬위원회, 264면].

49) 1894년 2월 1일자 일기 부분(위의 책, 268면).

한때 자신을 기독교로 이끌고 또 미국 유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 교사였던 본넬 교수는 이제 ‘흉금을 터놓은 대화’를 나누는 동료가 되었다. 이 무렵 윤치호는 마수진(馬秀珍)과의 혼인을 앞두고 복장 문제로 신부의 집안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신부 집안에서는 중국식 예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윤치호는 인습과의 타협이라면서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서양인인 본넬 교수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유럽식 표준이나 양식에 대해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상황의 맥락에서는 그 차이가 오히려 윤치호를 서양인과 대등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윤치호는 본넬 교수가 자신이 “그와 다른 인종이라는 것을 잊은 듯이 보인다”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 다른 인종이라는 것을 때때로 잊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닐까.

(1894년 5월-인용자) 31일(목요일, 온종일 비)

5월은 미국의 ‘남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지만 상하이에서는 열두 달 중 가장 불순한 달이다. 사랑스런 아내가 아픈 다리 때문에 오늘 거의 걸을 수 없었다. 40센트를 주고 13개의 식물 화분을 샀다—값싼 사치.

중국의 고전이 무엇을 가르치든 그들이 강조하는 유일한 것은 예(禮)다: 공자가 무엇을 열심히 가르치든 그가 주장하는 유일한 것은 예다; 훌륭한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세대 공자의 추종자들이 무엇을 쓰고 강의하든 그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우월한 듯이 그들 스스로 얼마나 젠체하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예다; 이 예라는 것이 그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체면 혹은 예절이다; 그러므로 중국인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우리가 중국에서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체면 혹은 예절이다.

그러나 당신이 온갖 국적의 남녀가 오고가는 분(Boon)이나 차푸(Chapoo) 거리와 같은 두 큰 길 교차로에서 소변을 보는 이를 볼 때, 혹은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나 어머니의 젖을 막 뗀 어린아이들, 주인들과 하인들, 관리들과 노무자들, 나이든 부인들과 깊은 여성들의 입에서 아무 때나 상스럽고 더러운 말이 튀어 나오는 것을 들을 때—당신이 이 모든 것을 목격할 때, 근 3천년 동안 이들에게 군림하고도 밖으로 드러난 행동과 말씨조차 그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으니 유교는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⁵⁰⁾

50) 위의 책, 319면.

이 무렵 일기의 한 대목인 위의 인용에서는 반복, 대조, 대구의 수사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유학 시절의 일기의 특징이 지속, 혹은 발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수사법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고립된 의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교 비판 중심의 이념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동원된 이데올로기적 장치이며, 어느덧 목소리는 연설적 어조를 띠고 있다.

많은 흑인 소년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바다에 빠졌다. 나이든 흑인의 도움이 없으면 그는 익사해 죽었을 것이다. 한 구경꾼이 찬양하듯이 엉클 모세 (Uncle Mose)에게 “그가 당신의 아들이오?”하고 물었다. “아니오, 주인님”, “그러나 그가 모든 미끼를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 노인이 말했다. 일본이 불쌍한 조선을 개혁하려고 하는 동기는 그 소년을 구한 엉클 모세만큼이나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내 자신의 얼굴을 씻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분히 자랐으면 좋겠어요.”라고 엄마가 존의 얼굴을 씻어주자 존이 투덜거렸다. “그러니 나는 얼굴을 씻지 않겠어.” 중국과 조선은 스스로 개혁하는데 외국이 개입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 중국도 조선도 개혁하지 않을 것이다.⁵¹⁾

위의 인용에서는 일기 속에 서사가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서사는 고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계몽을 위한 수사적 장치가 된다. 이 무렵 윤치호 일기 속의 서사는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 윤치호는 다시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더 이상 유학생 시절의 고립된 삶 속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망명객 신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세상의 밀바닥에서 글쓰기를 통해 막막한 미래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억눌린 의식으로 인해 그 예민해진 감정과 사유를 표현하기 위해 이끌어 와야 했던 수사학의 요구가 이제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 징후는 그가 조선에 다시 발을 딛는 그 순간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51) 1894년 12월 10일 일기의 부분(위의 책, 409-410면).

배는 지난 밤 11시에 제물포에 도착했다. 그러나 너무 춥고 어두워서 물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오늘 아침 9시에 상륙했다.

외국 생활을 하다가 1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가! 내가 어디서나 어느 때나 행복할 수 있다면 확실히 나는 이제 여기서 행복해야 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 나는 가끔 지금과 마찬가지로 슬펐다. 때가 꼬질꼬질 묻은 희고 볼품없는 의복을 입은 조선인 노동자, 그들이 살고 있는 땅보다 별로 높지 않게 솟아있는 조선인의 오두막집, 가장 더러운 청국인의 오두막도 거기 견주면 궁전 같다. 오를더미의 지독한 냄새가 사방에 풍기고, 지독히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도저히 방어능력이 없는 조선을 슬프게 상징하는 듯한 별거벗고 볼품없는 민둥산, 이런 모습들은 어떤 애국적인 조선인이라도 역겹게 하기에 충분하다. 나는 절망의 미소 밖에는 지을 수 없다. 조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라, 열 번이라도 오라. 기독교도든 이교도든. 나는 그를 위해 도와주고 기도하겠다. 천주교와 성공회의 깔끔한 성당이 눈에 들어왔다. 주여 그들과 함께 하소서.⁵²⁾

조선에 도착하는 순간 이미 그의 의식은 계몽적 욕망과 자부심에 의해 압도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자신감이 “조선의 정치는 상습적으로 추악하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조선인의 특질 가운데 하나는 가장 큰 비용을 들여 가장 적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그들이 입은 옷은 어울리지 않게 크지만, 물건을 넣을 만한 주머니가 하나도 없다. 거처하는 집은 미국의 ‘광활한 서부’만큼 넓지만 실용적 측면에서는 한성에 있는 큰 집보다 미국의 보통 규모 오두막집이 낫다. 내 집은 남녀 하인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일본인이나 서양인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 부서는 나라라는 기계를 먼지와 기름으로 꽉 막혀 고장 나게 하는 관리들로 가득 쌐다. 학자들은 자기의 정력과 시간을 8세부터 80세까지 많은 책을 보느라 낭비하는데, 이 책들은 그들을 공허한 지식으로 우쭐대기만 하는 위대한 얼간이가 되게 할 뿐이다”와⁵³⁾ 같은 전면적인 환멸감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는다.

윤치호는 거의 전 생애에 걸쳐 일기 쓰기를 통해 자기에의 관심을 지속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그 관심의 밀도와 충실성은 특히 그가 비자발적인 조건에 의

52) 1895년 2월 12일 일기의 부분[윤치호(박정신 · 이민원 옮김), 2015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3』, 국사편찬위원회, 18면].

53) 1895년 2월 16일자 일기 부분(위의 책, 25-26면).

해 공적 생활로부터 멀어져 이방인이자 학생으로 지냈던 시기에 특히 두드려지며 그 밀도와 충실성은 앞서 살펴온 것처럼 ‘고백’의 비중과 ‘노벨’적 성격의 강도에 대응되고 있다. 리쾨르(Paul Ricoeur)의 논의를 빌려 말하자면, 그 시기 윤치호에게 동일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은 매우 막막한 상태였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자기성에 대한 탐구는 유례없이 강렬했던 것이며 그 강렬함이 일상적 기록의 테두리를 벗어나 그의 일기를 허구의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이다.⁵⁴⁾

5. 결론

이상에서 윤치호 초기 일기에 내재된 고백적 특징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적 경험과 만나면서 허구화의 경향을 갖추기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원래의 문화적 상황으로 회귀하면서 수사적 특성이 계몽적 논리화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미셸 푸코는 ‘고백’의 기원을 루소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고대 그리스의 ‘자기애의 배려’의 전통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기애 관하여 쓰는 작업은 종교 개혁이나 낭만주의에서 탄생한 근대적 특색이 아니며, 가장 오래된 서양 전통의 하나”이다.⁵⁵⁾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백을 근대적 현상으로, 근대소설이라는 제도의 효과로 설명하는 방식을 반성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⁵⁶⁾ 서양과 일본의 소설에 둘러싸여 있던 근대 초기 고백체 소설의 경우에는 그런 설명이 정합성을 갖는 듯 보일 수 있었지만, 윤치호 일기를 근거로 생각해보면 그 경우에도 경험을 통해 성립되고 있던 의식이 근대소설이라는 제도와의 만남을 통해 표현의 형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윤치

54) 정체성의 두 측면인 ‘자체성(idem)’과 ‘자기성(ipse)’의 구분과 연관에 관해서는 폴 리쾨르(김웅권 옮김), 2006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가운데 특히 6장 참조.

55) 미셸 푸코(이희원 옮김), 1997 「자기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 동문선, 52면.

56) 정작 그런 사유 방식에 영향을 미친 푸코 자신은 자신의 분석을 “제도의 자의성을 밝히고, 우리가 여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은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변화가 아직도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명백히 제시하는 일”(렉스 마틴, 이희원 옮김, 1997 「진리·권력·자기: 미셸 푸코와의 대담」, 위의 책, 22면)로 규정하고 있다.

호 일기는 외부 세계와 대면하는 경험을 계기로 봉건적 세계 내부에서 근대적 자아, 근대적 글쓰기 의식이 자생적으로 성립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치호 일기에 나타난 고백적 성격과 그것의 허구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윤치호는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허구 창작의 계기와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과정은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전반에 걸쳐 일본 유학생 계층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그것은 곧 근대 소설의 성립 과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윤치호 일기 속의 몇몇 장면들이 한국 근대 소설의 초기 국면을 개척했던 일본 유학생 출신 작가들에 의한 소설(이른바 ‘고백체’ 소설)의 모티프를 선취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 윤치호, 윤치호 일기, 노스럽 프라이, 제라르 주네트, 장르론, 허구화 경향

투고일(2018. 5. 14), 심사시작일(2018. 5. 31), 심사완료일(2018. 6. 14)

〈Abstract〉

On the Inclination for Fictionality in Yun, Chi-ho's early diaries

Son, Jeong-soo *

This paper aims to reveal an inclination for fictionality in Yun, Chi-ho's early diaries. It can be said that confessional forms have appeared since the period of Chinese writing. In there Yun spoke his internal life such as sexual discourses. By doing so, he could manage to carry out his self-discipline. After the diary writer exiled to the U.S., vitalizing tendency toward fictionality was more strengthened as time passed. He sometimes adopted epistolary style in his diaries and occasionally constructed fictional narrative forms through association with his experiences. In that process, his writing has developed various rhetorical expressions(e.g. simile, metaphor, rhyming couplet, contrast, homonym, analogy etc.) which are not general in the diary writing. But after he came back to China as a missionary, his diaries were no longer confessional but changed to be argumentative and the features of rhetorical expression altered to enlightening devices.

Key Words : Yun, Chi-ho(尹致昊), Yun, Chi-ho's diary(尹致昊日記), Northrop Frye, Gérard Genette, genre theory, an inclination for fic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Keimyung University.